

발효산업, 성공 제도 진입

순창군 한국형유용균주 제품 10건 출시... 단기 판매 매출 6억원 달성

순창군이 한국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유용균주와 기술을 지원해 기업들이 단기 판매 6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산업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군은 유용균주를 활용한 제품 10건을 출시하고 기업들이 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통해 단기 6억원 이상의 직접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업에서 본격 상품을 출시해 약 6개월 동안 10개 제품에 대한 단기매출이 앞으로 판매량은 더 확 대될 것으로 보인다. 발효커피, 토마 토고추장, 청국장향 3종 세트, 냉채는 청국장, 유아용 된장 등의 제품이 대표적 상품이다.

사업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한국형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진행했다.

최근 2년간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산업용 후보균주 1,341주를 발굴하고 그 중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유용 발효미생물 40주를 선발해 유전체분석을 완료하고 NCBI(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등록을 완료하는 성과도 거뒀다.

산업용 균주로 선발한 40주 중에서 11개 균주는 상품화를 원하는 기업을 선정해 제품개발 및 상품화를 진행했



황숙주 순창군수가 기업 관계자로부터 한국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제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으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사업단이 유용균주 판매를 통해 얻은 로열티는 2억 1,000만원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될 계획으로 그 확장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2020년까지 유용균주 2,500주 확보, 50개 이상의 기업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100명, 매출 50억원 달성, 유용균주 로열티 30억 수입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발효미생물은 순창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사업으로 순색이 없는 확정성이 큰 사업이다"면서 "순창의 발효미생물 산업은 이제 산업화 성공을 위한 본격적인 계도에 진입했으며, 이러한 산업화기반을 통해 친환경, 건강장수, 동물식품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AI 종식 수순... 발생농가 이동제한 해제

순창군, 차단방역·가축 입실관리 강화 재발방지 총력

순창군은 구립면 소규모농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발생농가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을 지난 14일 24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차단방역과 가축 입실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에도 나선 상태다.

순창군은 올해 6월 9일 구립면의 한 토종닭(8수)사육농가에서 AI가 발생해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10km 이내 가금류에 대한 이동을 통제해 왔었다.

이번 방역대 해제 결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대 (반경 10km) 모든 가금류(38종)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 징후가 없었고 특수 가금(오리, 거위, 기러기 등)과 민 칠사

환경시료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확산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순창군은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 예방적 수매, 도태를 실시해 위험 요인을 제거(50호/6,910수)하고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

을 지정해 예찰, 점검을 강화해 왔다. 또한 매일 아침 부군수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가축 사육농가가 밀집해 있는 대규모 농가로 AI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관내에 차량이동시 거점 소독소소를 설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가축이동과 야생조류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 소형빗물이용시설 확대 설치

임실군은 장마철 또는 집중호우 시 하천으로 버려지는 빗물 재사용 확대를 위해 소형빗물이용시설을 점차 확대 설치하고 있다.

'소형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면적이 넓은 공공기관 청사와 초등학교 등에서 모은 빗물을 여과해 저류탱크에 저장 후 조경관리나 화장실 등에 사용한다.

군은 지난해 청소년수련원에 이어 올해는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개 저류용량의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신령면사무소에 설치했다.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롯해 물 절약 효과가 기대되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붕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설치를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설 소유자는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빗물은 조정, 화장실, 청소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며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경제적 효과도 입증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홍보와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토종 씨말리는 외래어종 퇴치 성과

임실, 옥정호 낚시·잠수부 이용 포획 결과 개체수 감소 뚜렷

임실군이 옥정호의 토종 어종을 위협하는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 등 퇴치작업에 적극 나선 가운데 배스 개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새만금지하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댐관리단과 연대해 퇴치 낚시와 잠수부를 이용한 포획 어종을 이용, 외래어종인 배스를 퇴치한 결과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물고기를 마구 먹어치우고 번식력 또한 강한 배스와 블루길은 옥정호의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어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수중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으로 저수지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 서식하며 토종 어종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주범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옥정호의 토종어종 보호와 수중생태계 보호를 위한 외래

어종 퇴치작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최근 확인결과 옥정호에 서식하는 어류 중 배스는 상당 부분 줄어든 가운데 블루길은 높은 번식력으로 76.1%의 우점종으로 분류됐다.

이우점종인 피라미와 빙어, 잉어, 배스, 잉어, 뚝지개, 메기 등은 상대적으로 희소종으로 나타났다. 최근 배스가 많이 없어지면서 번식력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우점종을 차지하고 있는 블루길 퇴치를 위해 새만금지하환경청과 연계해 옥정호 내에 블루길 퇴치 어구를 설치, 8월말까지 약 3톤 정도를 포획할 계획이다.

옥정호 주변 주민인 장모씨는 "배스가 많이 없어졌고 민물새우, 뚝지개, 피라미, 빙어, 날치 등 토종 어류가 많이 번식하고 있다"며 "임실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외래어종 퇴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방역소독 강화 힘쏟아

임실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방역소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의료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해 모기 발생률이 높은 오는 10월까지 하절기 방역소독 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읍·면 방역소독요원은 각종 감염병 매개 해충 구제를 위해 주먹가 쥐약지역, 공공장소, 행사장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보다 2주 빠른 일몰이 열 경보 발령과 장마가 끝난 후 고온다습한 날씨로 수인성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민물하수구, 물웅덩이, 주거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군 의료원 관계자는 "모기 매개성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외 활동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하절기 감염병 발생의 주 매개체인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해충 박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행복나눔 청소년 흥부베이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제과 제빵 만들고 있다.

"빵으로 나누는 빵빵한 사랑"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 흥부베이커리 구슬담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종철)는 지난 15일부터 청소년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제과 제빵 결과물(쿠키, 단팻빵, 카스테라 등)을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에 전달하는 행복 나눔 청소년 흥부 베이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원 관내 중·고생 중 평소 제과 제빵사를 꿈꾸며 자신의 진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2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직접 만든 쿠키와 단팻빵 등을 아동, 어르신 등에게 전달하고 야외 활동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하절기 감염병 발생의 주 매개체인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해충 박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점(대표 김정례)의 재능기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꿈꾸는 진로 탐색과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분야를 확대하고자 기획됐으며, 7월 말까지 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양경남 센터장은 "흥부베이커리와 같은 자신의 진로나 특기를 살린 진정성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진로와 연계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이 나누고 배울수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소방서 폭염구급대 운영

최근 이상 기후로 평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북 진안 소재 한 도로에서 제조 작업 중이던 최 모 씨가 열탈진으로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잇단 폭염 특보 발령에 따라 폭염대응 구급활동 대응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오는 9월까지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현재 남원 순창 관내 구급차 9대와 펌프차 4대를 폭염구급대로 지정하고 열음조기, 열음팩, 정맥주사세트 등 9종 506점의 폭염관련 구급장비를 비치해 최상의 폭염 대비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 구급장비 확보 및 차량 정비, 온열질환자 응급처치 능력향상을 위한 구급대원 교육, 폭염 취약 대상 및 지역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강화, 온열질환자 치료 가능병원 현황 파악 등을 통하여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용주 서장은 "폭염 시에는 의술이나 스포츠경기 등의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온열질환자 발생했을 때는 시원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즉시 환자를 이동시키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紅蔘酒 19° 375ml
眞心 紅蔘酒 19° 375ml
眞心 紅蔘酒 19° 375ml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